

190905

praat

헤르츠: 1초를 44100개로 쪼개서(44100분의 1초)

속제: 녹음하고 저장하기 WAV 파일

show pitch: 파란선 나옴, 목소리 높낮이, 여자가 높음

intensity: 세기, 노란선 나옴(폭이 넓으면 값이 높고 폭이 좁으면 값이 낮음)

wave 밑에 흑백: 소리의 spectrum(높은게 고주파, 낮은게 저주파)

190917

English consonants & vowels

철자와 소리는 다름-g/a/p

y/j/는 자음-> year라고 쓰면 자음으로 소리가 시작됨(모음으로 시작하는 ear에 자음 y가 붙은 것)

voiced/voiceless

모음: monophthongs(단모음) / diphthongs(복모음)

phonology: 소리가 어떻게 grouping되는지,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, 머릿속의 인지 과정, study on sound 'system'

phonetics: 더 물리학적, 늘 차이가 생김, physical(가를 똑같이 열 번 얘기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, 실제로는 미묘한 차이가 생겨남), study on speech

speech: 사람이 하는 모든 말

‘아’에서 ‘이’로 소리가 바뀌는 이유? 입모양 때문(입모양 속에 혀의 위치, 턱 등 포함-주된 요인은 아님)

한국어는 음절이 반복, 영어는 stress가 반복

한국어는 턱을 많이 쓰는 언어, 영어는 혀를 많이 쓰는 언어

articulatory: 말의 시작,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원리

acoustic: 공기와 소리가 어떻게 조화되는가, 사람과 관계없이 완전 물리적 특성

auditory: 어떻게 듣는가, 사람이 수반된 매커니즘, 고막이 움직이는 것 고려(물리학)

성대(larynx): 후두

인강(pharynx): 목젖부터 후두까지 긴 관

구개(palate): hard / soft(velum)

alveolar: 아주 중요한 부분

목젖(uvula)

upper structure는 그대로 있고 lower structure가 움직임(e.g. lip, tongue tip, tongue, epiglottis- 기도로 가는 길을 막음)

말할 때 식도는 이용하지 않고 기도를 이용

입말고 코로 가는 tract도 있음

비음을 뱉 모든 자음(nasal)은 velum이 raised된 상태에서 소리가 남(nasal은 lowered)

코로 숨을 쉴 때: velum은 lowered된 상태

larynx: 막히면 진동, 유성음/무성음 나눔

phonation process in larynx

articulation: 성대에서 유성/무성 구분, velum에서 lowered/raised되는 것

190919

유튜브에 남호성 교수님 강의 올라옴

조음, 음향(acoustic): 말하는게 어떻게 공기를 타고 가는가, 청각(auditory): 우리 뒤로 들어가는 과정

조음: 크게 세 가지 요소(ppt에 세 동그라미)

제일 중요한 부분: 혀를 중심으로

숨을 쉴 때: velum은 내려옴-> 코로 가는 길이 생김

velum이 lowered 되면 m, n, ng 등 소리가 남

lip, tongue tip, tongue body 모두 constrictor(협착을 만드는 주체)

constriction location: 앞뒤 조절

constriction degree: 상하 조절

constriction location과 constriction degree에 의해 자세히 조정됨

lip이 앞으로 가면 b, 뒤로 오면 v

tongue body가 앞으로 오면 j

tongue tip: 윗니(th), alveolar(d, t, n), ...

constriction location 관점에서 lip, tongue body는 2개, tongue tip은 네 개 정도로 미세 조정됨

constriction degree: stops, fricatives, approximants(영어에서 네 개- r, l, w, j), vowels

!!시험

velum raised, glottis(larynx의 틈) open, constrictor tongue tip, CL alveolar, CD stop 소리는? /t/

모든 모음은 constrictor로서 tongue body만 씹(tongue tip과 lips는 안 씹)

모음과 같은 constrictor를 쓰는 자음의 예시 중 velum lowered? /ng/- glottis closed(진동 일어남-유성음)

phoneme: 개별적인 소리

모음과 자음 specify하는거 시험

소리를 measure하는 방법

duration: 길이, 자음은 짧고 모음은 길

pitch: 파란 곡선, 높다가 낮아지는 그래프(ppt), 소리의 높낮이(Hz), 여성의 목소리인지 남성의 목소리인지에 따라 setting-range를 다르게 해줘야함

intensity: 소리가 큰지 작은지 (같은 도라도 약하거나 세게 말할 수 있음)(dB)

spectrum: 소리가 1차원적인 것이 아님, frequency 관점에서 분석

spectrogram: 프리즘으로 빛을 분산시키듯이 frequency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

까만 띠가 보임- formant라고 함

formant: 흑백의 띠, 모음이 뭔지 결정, 모음을 구별하는 수치적인 지표- formant 값에 따라 이 모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음, 줄여서 f1, f2 이런 식으로 말함

190924

어떻게 자음과 모음을 발성하는가?

세 가지 중요한 과정- larynx, velum, 입

p: lips-> location- bilabial, degree- stop, velum raised, larynx open

b: p에서 larynx만 closed로 바뀌면 됨

d: tongue tip-> location- alveolar, degree- stop

z: tongue tip-> location- alveolar, degree- fricative

n: tongue tip-> location- alveolar, degree- stop, velum lowered, larynx closed

praat 시험에 나올 수 있음

Hz: measure의 단위, 1초 동안 크게 반복되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(the number of occurrences of a repeating event per second)

1초에 sine wave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 주파수를 얘기할 수 있음

frequency: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

magnitude: sine wave의 크기

vocal fold의 vibration에 의해 repeat이 일어남

sine wave를 결정짓는 것은 frequency와 magnitude(얼마나 소리가 큰지)

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signal(sound 포함)은 여러 다르게 생긴 sine wave의 결합으로 표현됨

모든 신호는 조금씩 다른 sine wave의 합

파란 그래프: frequency가 상대적으로 높음(첫 번째 빨간 것보다 3배 빠름)

frequency가 작음-> slow하다는 것, 저음

magnitude는 두 번째 초록색이 제일 작고, 첫 번째 빨간색이 제일 큼

여러 sine wave의 합은 sine wave가 아닌 복잡한 소리로 만들어짐

복잡한 소리, 혹은 신호는 다양한 sine wave의 합으로 표현됨

합(complex tone): 1초에 100번 반복됨(빨간 wave와 똑같은 반복되는 주기)

sine wave에서 x축: 시간, y축: 단순한 숫자값, value(voltage)

time-value의 그래프를 frequency-amplitude 그래프(spectrum)로 변환시킬 줄 알아야함

spectrum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? 우리 주변에서 보는 소리는 복잡한 형태

spectrogram- spectrum을 time으로 visualize함(spectrum은 시간개념이 없음, 한 given point에서 어떤 frequency 성분이 많은가를 보는 것), spectrum을 시간축으로 늘려놓은 것

아 라고 녹음하고 spectrum slice를 확인했더니 130Hz 간격으로 반복됨- 등간격 (아까 pure tone을 만들었을 때는 440hz하나만 있었는데, 사람 목소리는 complex tone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생김)

맨 처음 나오는 130Hz는 목소리의 pitch와 일치- 제일 낮은 주파수의 것과 일치(ppt- 100Hz의 반복 패턴이 합성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)

-> 사람의 음의 높낮이는 어떤 frequency와 일치하는가? 제일 작은 pure tone(sine wave)의 진동수와 일치(위에서는 130Hz)

-> 아 라고 얘기를 할 때, 여러 다른 simplex tone의 합으로 녹음됨-> 제일 slow한 simplex tone의 frequency가 우리 목소리의 pitch(음높이)와 동일-> 성대에서 vocal folds가 1초에 몇 번 떨리는지와 일치

진동수- frequency, 1초에 몇 번 반복되는지, 단위는 Hz

source(성대에서 나는 소리)에서 filter(tube, 입모양 등)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ㅏ 소리로, ㅣ 소리도 만들 수 있음

graph가 decreasing- 모든 사람의 source의 패턴

제일 처음에 나오는 F0(fundamental frequency, pitch, the number of vocal fold's vibration in a second)이 이후 곱하기되어서 나옴(115->230->...)- harmonics(배음- 배를 이룸)

speech의 source는 sine wave의 합처럼 저렇게 생김(ppt에서 gradually decreasing하는 그래프), 점점 amplitude가 작아짐

모든 사람의 source는 똑같은 패턴이지만, 거리는 다를 수 있음- 여자면 첫 시작이 남자보다 높을 것-> graph 모양이 더 듬성듬성인 모양일 것 (10000Hz에서 자른다고 생각했을 때, 남자가 갖는 배음의 숫자가 여자보다 많음- 시험)

head 소리의 graph- 배음의 구조가 안 깨짐(115의 배수대로 가는 건 그대로 유지)

amplitude가 깨짐- smoothly decreased가 아닌 제멋대로 왔다갔다

spectrogram은 wave와 쌍을 이룸

x축은 wave와 마찬가지로 time이지만 y축은 frequency

밑은 까맣고 위로 갈수록 열어짐, 진한 부분이 amplitude가 큼

low frequency 쪽에서 energy가 크고, high frequency에서 에너지가 약해짐 (까맣게 생긴 것이 에너지가 큼)-> 옆에 analysis한 graph도 마찬가지

190926

모든 소리: simplex sound의 합

sine wave: 다양하게 패턴 바꿈

wave form: x축이 시간, y축은 그냥 value

spectrogram에서 x축은 시간, y축은 frequency(!시험)

sine wave에 F0가 정해지고, 그것의 배음의 합으로 목소리의 source가 정해짐

목소리의 pitch는 첫 번째 frequency와 일치- F0 (단위는 Hz)

저주파에선 에너지가 높고, 고주파로 가면 약해짐

입모양이 filter 역할

harmonics가 gradually decreased되지 않음

위의 source와 마찬가지로 harmonics가 일정 간격 유지

source: peak가 없음, gradually 낮아지기 때문-> 산맥 형성 안 됨

pure tone들이 high frequency로 갈수록 decrease되는 것이 voice source의 패턴

누가 /아/라고 말하든 산맥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남

산맥- formants

harmonics에서 제일 첫 번째- F0(pitch)

산맥에서 첫 번째, 두 번째.. 산맥을 f1, f2... 라고 말함(harmonics와는 다름)

fundamental frequency: 220Hz (guitar)

기타는 complex tone- 사람의 목소리와 똑같음 (220, 440... 의 합으로 되어있음)

100Hz부터 1000Hz까지 combined mono된 소리: 반복주기는 F0와 일치- 인지심리학적으로 100Hz(F0)의 높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짐

F0: 첫 번째 나오는 것의 frequency(Hz)

F1: 처음 나오는 peak

F2: 두 번째로 나오는 peak

영어와 한국어의 /아/: 영어가 더 back, low한 소리

191001

컴퓨터 언어는 여러 종류가 있음(java, python 등)

다 다르지만 공통점 있음- 모든 language는 단어(정보가 들어 있음, 정보를 담는 그릇)와 문법(단어를 어떻게 combine?)이 존재

변수(variable): 단어에 해당, 정보를 담는 그릇의 역할 (정보의 종류는 많지 않음- 숫자와 글자 두 가지)

기계의 문법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음

컴퓨터 문법: 변수라고 하는 그릇에 정보를 담음, conditioning(if문법), 여러 번 반복(for-loop?), 함수를 배움(입력-출력)(제일 중요)

디렉토리: 컴퓨터에서 어디에 위치해있는지

=: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왼쪽의 variable로 assemble하는 것 의미 (1이라는 정보를 a라는 변수에 넣음)

python의 모든 함수는 누가 만들어놨던걸 수도 있고, 내가 만들 수도 있고

print라는 함수의 입력: a

입력을 표시해주는 것: 괄호()

셀을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 후 b라고 치면 below에 셀을 만들어줌

x를 치면 없어짐

print(a)라고 쳤을 때 1이 나오는 것은 새로운 셀이 아니라 결과값

a=2라고 치고 run을 눌러 실행하면 1은 없어지고 2가 됨-> print(a)를 했을 때 2가 나옴
print(a)=1인걸 실행하고 밑에 print(a)를 실행하면 2가 아니라 다시 1이 됨

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땐 반드시 quote를 넣어줘야 함(e.g. b = 'love')
run의 단축키: shift+enter

```
love = 2
b = love (b = 'love'였던 아까와는 다름)
라고 한 후 print(b)=> 2라는 결과값이 나옴
```

여러 번 입력한 것 중 변수를 한 번 더 써주면 print 함수 없이도 그 결과값을 보여줌, 다음 셀에 c를 그냥 쳐도 3을 보여줌

variable은 quote없이, 문자 정보는 반드시 quote(single, double 상관 없음)

[]: 여러 숫자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음(e.g. a = [1, 2, 3, 5])

type의 종류: int, float, str, list, tuple, dict...
(type 종류 묻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음)

list-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음(e.g. a = [1, 2, 3, 5, 'love'])
list와 tuple은 완전 똑같음- list는 대괄호 사용, tuple은 그냥 괄호 사용
tuple이 보안에 더 강함

a = {'a': 'apple', 'b': 'banana'} - dictionary에 2개를 넣은 것 (콤마로 인해 2개가 들어와 있음, 중괄호를 씀- 중괄호를 써야 dictionary, 몇 개를 넣을지는 콤마로 표현, 설명의 쌍은 콜론으로 표현, 콜론 안에 string만 들어갈 필요는 없음)

191008

중간- 오픈북, 암기 필요 없음, 이해해야하는 문제 위주로
순서: variables-> string-> syntax-> numpy (sound는 중간고사 이후)

제일 advanced된 것- dict
variable-24

list는 단편적 정보를 넣지만, dict는 페어(콜론)로 넣음(두 개짜리 페어가 여러 개- a-apple, b-orange, c-2014)

a 리스트에서 0번째, b에서 0번째를 가지고 와서 더하면 4
각각 1번째를 가지고 와서 더하면 6

세미콜론: 두 줄 적을거 한 줄에 적고 싶을 때

float 함수: 어떤 variable이 들어오면 그것을 float로 바꿔줌(e.g. 원래 int였던 a=1이 float로 됨)

int 함수: int로 바꿔줌 (e.g. float를 int로 바꿔줌) a = 1.2; a = int(a); print(type(a)) => int

variable-20

어떤 variable의 내부 정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씀

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index

variable 이름을 a라고 적고-> 대괄호 열고 닫고-> 내부적 정보를 부분적으로 가져옴

-> 2라는 문자를 가지고 옴(숫자가 아님)

a='123'이 아닌 a=123을 넣었을 때(quote를 뺐을 때) 에러 나는 이유: 0번째 것밖에 없기 때
문

variable-21

str(문자)이었던 것을 list로 바꿈-> 123이 쪼개져서 각각 문자로 list화 됨

```
a = (1, '2', [3, '4']); print(type(a)); print(a[0]); print(a[1]); print(a[2])
```

```
<class 'tuple'>
```

```
1
```

```
2
```

```
[3, '4']
```

1은 숫자로서, 2는 문자로서 print된 것임

```
a = {"a": "apple", "b": "orange", "c": 2014}
```

```
print(type(a))
```

```
print(a["a"])
```

```
<class 'dict'>
```

```
apple
```

a, b, c: index로서 기능 (페어에서 앞부분이 index)

사전과 같음- 표제어(a, b, c)와 내용

index의 type: 전부 다 string(quote로 되어 있음)

“a”를 1로 바꿔도 똑같음(quote 빼도 똑같음)

```
s = 'abcdef'
```

```
print(s[0], s[5], s[-1], s[-6])
```

```
print(s[1:3], s[1:], s[:3], s[:])
```

```
<class 'str'>
```

```
a f f a
```


bc bcdef abc abcdef

제일 앞은 늘 0, 제일 마지막은 늘 -1, 끝에서 몇 번째를 구할때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임

[1:3] -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직전(=두 번째)까지 가져온다는 뜻-> bc가 됨

[1:] - 첫 번째부터 끝까지

[:3] - 맨 처음부터 두 번째 까지

[:] - 전부 다

list(sound-3)와 string(sound-6)은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옴

print- 콤마를 찍으면 한 줄에서도 여러 개를 print out 할 수 있음

len: variable 내에 있는 정보의 길이, 개수

s의 길이: 6(abcdef)

n의 길이: 3

upper: 일종의 함수, s 속의 문자가 대문자로 바뀜, s를 upper 시킨 함수

파이썬과 같은 language에서는, 어떤 variable을 만들고 그 옆에 .을 붙여 함수같이 쓰면 실행됨

find: 찾아주는 함수 (string-7: s 속에 담겨있는 string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)

결과: 몇 번째로 나오는지 (e.g. 11번째에서 house가 시작됨- 제일 앞 띄어쓰기(space) 때문에 11번째가 됨 / this- 두 번 나오는 것 중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을 찾아줌)

rindex: 여러 개 중 제일 마지막 index

strip: 잡스러운걸 지워주는 함수, 순수한 텍스트만 남겨줌

split: . 앞에 오는 긴 string을(e.g. s) split 함수에 있는 입력을 이용해서 자르라는 뜻, 단어 수준에서 작업하고 싶을 때, 긴 string을 자름(여기서는 "안이 space이므로, space를 기준으로 자름, 콤마가 사용되었으면 콤마일 수도 있음)

tokens: 임의로 정한 variable의 이름

join: split을 이용해 잘라 list로 자른 후 이것을 다시 문장으로 복구하고 싶을 때 사용

. 앞에 space 입력-> space(' ')를 이용해 token에 들어있는 list를 붙이라는 뜻

replace: e.g. 이 string 속의 모든 this를 that으로 바꿔라

191010

syntax 문법

loop: 여러 개를 반복할 때 씬

function: 입력-출력

셀에 comment다는 방법: # 다음 글씨를 씬

markdown: 셀에 무엇을 써도 실행이 안 됨, 주석의 기능 (code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고 markdown으로 바꾸면 됨)

for: 어떤 language든 똑같이 씀

for i in a:

in 뒤에 있는 것을 하나씩 돌려서 i가 그 하나하나씩을 받아 무언가를 하라 : 밑에 적어주면 됨

a 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i에다가 넣어라(할당해라)

1번째 루프에는 1이, 2번째에는 2가, 3번째는 3이, 그 다음에는 4

in 뒤에 range함수 쓸 수 있음

range 뒤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list를 만들어줌- e.g. 4를 넣으면 0부터 3까지 만들어줌- 4개의 index를 만들어줌(index는 0부터 시작)

-> 루프를 돌면서 제일 처음에는 0번째 것(1)을 받고 쪽 이어지는 식

for loop 쓰는 두 가지 방법- 리스트를 그대로 쓰거나(각각의 element를 in 앞의 변수에 담아둠), range 함수를 씀(0부터 얼마까지 index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i가 받음)

그냥 print(i)라고 하면 0,1,2,3이 나옴

제일 첫 번째 루프에서 i는? 0 (range는 0에서 6)

for loop를 쓰지 않고 결과를 내는 방법: print(a[0]), print(a[1]) 이런 식으로 노가다

for loop의 내용은 반드시 indent가 있어야 함(for loop를 치고 콜론 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indent 생김)

a = ['red', 'green', 'blue', 'purple']

b = [0.2, 0.3, 0.1, 0.4]

각각 string과 number가 있는 길이가 같은 list

enumerate 함수: output 값이 자기 자신도 되고, 그것의 번호도 매겨줌 e.g. a의 list의 번호를 매김

variable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음(i, s)- 번호까지 받아줘야 함(앞이 번호, 뒤에가 자기 자신인 element)

in[16]

첫 번째 variable은 index, 두 번째는

-> 첫 번째 루프가 돌 때 i는 0, s는 red가 들어옴, 두 번째는 i는 1, s는 green 이런 식으로 들어옴

중괄호를 써줌

format 함수 속에 두 개가 들어있음- 그 두 개가 for loop를 4번 돌면서 매번 두 개의 중괄호안에 들어감

red와 $20(b[i]*100)$ 이 double quote안의 중괄호 형태 속에 들어감

$b[i]$: b의 i번째 것

zip: 두 개를 세트로 합침(따로 존재하는 두 개의 list가 4개짜리 페어가 됨-> 루프를 돔)

첫 번째 루프에서 red와 0.2가 각각 s, i에 들어감

in[19]

equal sign을 두 개 넣어줌-> 진짜 equal sign이 됨 (if에서 equal sign을 많이 씀)

$>=$: 크거나 같음(부등호 순서 바뀌면 안 됨, $==$ 대신 넣어줌)

$!=$: 아닌 경우

in[28]

시험- 두 번 for loop